

다산포럼



김진균
다산연구소 연구실장

조선왕조는 개국 초부터 명나라에게 해마다 조공(朝貢)을 바치고 국왕 교제 때마다 책봉(冊封)을 받았는데, 이러한 외교를 사대(事大)라고 부른다.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중원의 주인이 된 뒤 조선왕조는 사대의 대상을 청나라로 바꾸었다. 조선왕조는 국내적으로 자주적 통치권을 확보하여 실질적 독립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지만, 제국을 칭하는 중원의 거대 국가를 보편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제후국으로 자리매김하며 천하 질서 안에서의 생존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때 조선왕조는 천하 질서 안에 포괄되는 일본 등 다른 개별 국가들과는 상호 공존의 외교를 펼쳤는데, 이를 교린(交隣)이라고 부른다. 교린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과 맺는 외교적 의례를 적국항례(敵國抗禮)라고 하는데, 대등한 국가 간의 평등한 예의라는 뜻이며 줄여서 적례(敵禮)라고도 한다.

자본주의적 제국주의가 청나라에 침투하고 조선왕조도 실질적 독립성을 상실해 가던 1897년 조선은 대한제국을 선포하였다. 천하질서의 중심을 차지하고 보편 제국이 되었다는 야망의 표출이라기보다는, 조선이

적국항례(敵國抗禮)

해의 각국에게 청나라의 속국이 아님을 확인시키고 근대적 국제 질서에 편입하려는 의도에서였다. 대한제국은 청나라와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교환하는 등 청나라를 다른 외국과 형식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선이 독립국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사대 외교를 청산하고 모든 외국을 적례의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근대적 외교의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

이 무렵 유길준(兪吉濬, 1856-1914)은 ‘국권(國權)이라는 글에서 국가의 주권을 두 방향으로 설명했다. “하나는 내용 주권(內用主權)이다. 이는 그 나라의 일체 정치와 법제는 모두 그 나라의 전장(典章)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는 외용 주권(外用主權)이다. 독립 평등한 예로서 다른 나라와 교섭을 지킨다는 것이다.” 주권은 국내적으로 법과 제도에 기반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상호 존중 체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말이다. 근대 국가의 주권이 국내 정치의 정당성과 국제 관계의 자주성이라는 두 방향을 모두 포괄해야 하는 개념임을 계몽사상이 유길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이 식민지 시기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기업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제외했고, 한국 정부도 맞받아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나아가 지소미아(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의 연장을 거절했다. 상대국의 부당한 조치에 상응하는 적국항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23년 일본이 아무런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를 모두 환원시켰다. 대통령 한 사람은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정치권의 환대를 받았지만 국민들은 굴욕감을 삼켜야 했다. 최근 미국 정보 당국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한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은 유출된 정보가 상당 부분 조작된 것이라며 도청은 아예 문제 삼지도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 한 사람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여 더 큰 환대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국민들은 더 큰 굴욕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도청 내용이 유출되자 대통령이 내놓고 러시아를 적대하였고, 갑자기 중국의 대만 정책에 반대한다고 인터뷰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더해 짐작해 보면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위치 지으려는 저의가 돌출된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마·일과 대등하길 바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 위치를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거대 국가들과 대립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적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권은 대통령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정치적 합의라는 국내적 정당성과 상호 존중이라는 대외적 자주성을 결여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이 순간순간 돌발 표출되는 현상은 근대 국가의 외교 행태에 미달하는 것이다. 외교의 파탄은 전쟁 위험의 고조로 이어진다. 조선왕조의 사대 외교조차도 신중의 결과를 이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적국항례의 원칙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청춘 특특

육아 맘 만학도의 ‘전공 나눔 지역 봉사’



박세연
호남대 뷰티미용학과 3년

서른살 ‘육아 맘’이지만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아 다시 대학에 입학해 벌써 3학년이 시작되었다. 새 학기가 되어 학교에 변한 점이 있다면 대면 수업과 FT다. FT가 뭐냐고? 나와 같은 90년대 생이면 ‘MT’라는 말이 더 익숙할 것이다. ‘Field Trip’(현장 학습)이라는 말로 학과 선배배 동기들이 전공 재능을 살려 지역 사회에 봉사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호남대학교만의 ‘건전 MT’이다.

코로나 학번인 관계로 입학 후 처음 가게 된 FT. 올해는 학생회 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내부 행사 프로그램과 각종 회의들로 출발 전까지 매우 바빴었다. 기분 좋은 바빴이라고 할까? 내가 속한 뷰티미용과는 속소와 같은 지역인 화순의 한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의 헤어스타일링 및 페이스업 봉사와 함께 장수 사진 촬영을 도왔다. 자녀분들이 보내온 한복과 정장 의상으로 한껏 멋을 부리신 어르신들은 손주 같은 대학생들을 반갑게 맞아 주셨다. 전문 사진작가님도 동참하셔서 어르신들의 ‘화양연화’(花樣年華) 장수 사진 작품을 남겨 주셨다. 구순이 활짝 넘으신 어르신도 “언제 이런 호사

를 누리 보나” 하며 단장한 모습에 설레어 하셨다.

기뻐하시는 모습에 보는 우리 모두 즐겁게 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오늘이 남은 삶의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하지 않는가?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예쁜 모습과 즐거운 추억을 남겨 드리고 싶었다. 장수 사진이라는 말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서로를 위한 마음 덕분에 좁은 환경에서도 맑은 임무들을 해낼 수 있었다. 전공 나눔 현장 학습(FT)의 가장 좋은 점은 나의 작은 재능으로, 타인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쓰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자기 성취감을 얻게 된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선배배가 더욱 끈끈한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번 FT 전에는 비대면 수업이 많았거나 학년별로 다른 수업을 듣기 때문에 얼굴만 알 뿐, 자세히 알 기회가 없었다. 처음 가게 된 FT 덕분에 학교생활이 더 즐거워졌다. 그냥 지나쳤던 학우들과 서로 인사 나누며 시작하는 아침은 활기가 돈다. 10년 전 것 대학에 입학할 때인 스무 살 때와 비교해 본다면, FT 참여 인원이 생각보다 적었다는 점은 다소 아쉬웠다. 아직은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되지 않은 때라서 다소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료돼 학과, 그리고 단과대학까지 많은 인원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우리 대학은 15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매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던 MT를 건전하고 의미 있게 바꿔보고자 전공 체험+지역 봉사형 ‘건전 MT’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는 모범 사례로 전국 대학으로 확산됐고, 2017년부터는 전공 나눔 지역 봉사 현장 학습(FT)으로 전환해 실시해 오고 있다. 교수님, 학우들과 1박 2일 동안 함께하는 만큼, 성인이 되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외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학생 신분일 때 이런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꼭 누리 봤으면 좋겠다. 새로운 환경에서 많은 인원들이 1박 2일 활동을 한다는 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학생 때가 아니면 쉽게 할 수 없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나도 아이를 키우며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FT 활동이 큰 난관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올해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운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진행될 체육대회와, 또 내년에 있을 FT 활동에 꼭 참여해 보면 어떨까 한다. 그냥 보내긴 아쉬운 20세대. 단순한 친목 다지기가 아니다. 전공 체험과 사회에 이바지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전공 공부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활동이 되면 좋겠다.

코로나가 멀리 달아난 만큼 학교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면 어떨까? 먼 훗날 추억할 수 있는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 가 보자. 이번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학과 교수님들, 타 지역으로 떠난 봉사 활동에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장수 사진 촬영을 해주신 최중화 사진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 도 뜻깊고 보람찬 FT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준 늘애랑 학생회 임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손 편지 쓰는 날

지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조카들이 아버지 턱에 볼을 비비고 안기자 얼굴이 환한 미소로 가득했다.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축하 노래도 부르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식탁에 빙 둘러앉아 밥을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도 내 눈에는 웃은 아버지 모습이 쓸쓸해 보여서 자꾸만 눈물을 쏟을까 봐 안절부절못했다.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일흔 여덟 살인 아버지는 이 년째 혼자 살았다. 세상이 돌리는 걸 배우고 전기밥솥에 밥하는 걸 배웠다. 처음엔 어려워하더니 몇 번의 실패를 한 다음 곧잘 했다.

며칠 전, 남동생이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새벽에 남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밥솥이 고장 났는지 밥이 안 된다고 울먹였다고 한다. 남동생이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전기 코드가 빠져 있었다고 한다. 평생 어머니가 해 준 밥만 먹고 살다가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들었을까. 씩씩한 척 웃음을 머금은 채 홀로서기 하는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복지회관에서 붓글씨도 배우고, 노래도 부르고 게이트볼도 새로 시작하여 운동 배우는 걸 즐거워했다. 나도 아버지 닮아서 운동 좋아한다고 했더니 등을 다독였다. 나이 들수록 음식은 소식하고, 몸은 많이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우리 집에 가서 며칠만 계시자고 했더니 아버지는 부모가 되어서 자식 성가시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께 최선일까 많은 생각을 했다. 그때 손 편지를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편지지를 사다가 아버지께

손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편지란 많은 생각을 거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마음을 가다듬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생각해 커다란 종이에 매직으로 편지를 썼다.

아버지가 연 만들어 줄 때 즐거웠던 이야기를 쓰고, 잘 키워 주셔서 고맙다는 말도 썼다. 편지 마무리에 처음으로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도 고백했다. 편지를 보내고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는데 편지 잘 받았다고 전화하는 아버지 목소리가 낭랑했다. 무엇보다 글씨가 큼직해서 좋다는 말에 대성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말로는 하기 힘든 이야기도 편지로 쓰니 더 깊은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친구들에게 내가 보낸 편지를 직접 보여 주며 자랑했다고 뽐냈다.

모두들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은 휴대전화 문자가 편리할 것이다. 문자는 별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쓰기 쉽지만 손 편지는 생각을 여러 번 거르게 한다. 그동안 내 자식만 생각했던 지난날들이 죄송스럽고 이제야 절이 드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귀한 보물처럼 생각하는 손 편지 덕분에 나도 기분이 좋았다. 무엇보다 아버지는 백내장이 진행 중이어서 휴대전화로 보낸 문자를 쉽게 알아보지 못했다.

오늘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 모두 큰 종이 한 장 펴놓고, 부모님께 큰 글씨로 편지 한번 써 보면 어떨까?

社說

‘경부선의 3분의 1’ 호남선 KTX 배차 늘려야

광주 송정역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주말·휴일이면 고속 열차(KTX) 표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부선 등에 비해 배차 횟수가 적은 데다 소규모 열차가 집중 배치된 탓이다.

코레일의 2022년 KTX 1일 왕복 운행 횟수에 따르면 광주 송정역에는 평일 46편, 주말 48편이 오가고 있다. 그나마 이 가운데 23편은 정원이 일반 KTX(편당 20량, 955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KTX 산천 열차(편당 10량, 377석)다. 이에 따라 송정역의 주말 수송 가능 인원은 3만 2546명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광주보다 인구가 적은 울산에는 하루 평일 56편, 주말 58편이 운영되며 이 가운데 KTX 산천 열차는 여섯 편에 불과, 주말 수송 가능 인원이 5만 1922명에 이른다. 또한 대구·부산과 비교하면 송정역의 KTX 배차 규모는 초라할 정도다. 대구는 평일 104편·주말 121편이, 부산은 평일 102편·주말 119편이 배치돼 있고, 산천 열차는 두 지역 모두 열 편밖에

다. 덕분에 대구와 부산의 주말 수송 가능 인원은 각각 10만 9775명, 10만 7865명으로 광주의 세 배를 웃돈다.

경부선에 비해 턱없이 적은 호남선 KTX 배차로 인해 수도권을 방문하는 광주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고, 관광객 유인이나 기업 유치 등 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어제 송정역 광장에서 ‘고속열차 증편 촉구 결의대회’를 연 것도 KTX 배차에서 ‘호남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020년 1만 5000여 명에 그쳤던 광주 송정역의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올 들어 2만 6000명대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부터 호남선 KTX 증편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다른 지역처럼 산천 열차 대신 일반 KTX를 집중 배치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나주 ‘동학 살육 사죄비’ 한일 관계 본보기로

한일 양국 지식인과 시민이 뜻을 모아 나주시에 동학농민혁명 사죄비를 세우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나주동학농민혁명 위령비 건립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나주 시민의 날(10월 30일)에 맞춰 ‘나주 동학농민군 희생자를 기리는 비’를 세울 예정이다. 비석에는 “두 나라 지식인과 시민들 간의 우정과 연대를 통해 세워지게 된 사죄의 비가 지식인과 시민 연대를 뛰어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의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문구가 새겨진다. 또 “1894년 12월 10일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가 나주성에 입성한 이래 최후 항쟁 중이던 동학 농민군들이 근대식 소총과 전술로 무장한 일본군의 ‘전원 살육 작전’으로 처절하게 희생됐다”는 참상도 새겨진다. 이 비는 애초 2019년 계획 당시 ‘위령비’로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일본군 만행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담아 ‘사죄비’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죄비 건립 주체는 일본 시민단체체인 ‘일본 시민 동학 기행단’과 나주시, 원광대 원불교 사상연구원이다. 나가츠카 아키라 일본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는 동학 혁명 연구자인 박승우 전 원광대 총장과 함께 일본인들이 참여하는 ‘동학 기행단’을 꾸려 나주시 등 전직지를 답사하고 뜻을 모아 기금 118만 엔(약 1171만 원)을 모았다. 나주시와 원광대도 모금을 진행해 현재까지 2000만 원을 마련해 결실을 보게 됐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를 부인하고 강제 동원 배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국 국민이 사죄비 건립에 나선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가해국의 진정한 반성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를 인정하고 사죄해야만 한일 양국의 미래를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민심의 저변엔 정치 지형을 뒤엎을 거대한 ‘태풍의 눈’이 형성되는 흐름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위기 시대에 협치로 활로를 열어가기보다 적대적 공생 관계에 기대어 지속적으로 정쟁만 양산, 민심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여당은 극우 성향의 전광훈 목사 리스크로 곤욕을 치르고 있고 민주당은 2년 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태로 민심의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민심의 분노

이를 반영하듯 지난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비율이 3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32%에 불과 1%포인트 차이로 근접한 것이다. 지난 2021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정치권 자체를 불신임하는 무당층 비율이 가장 높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도 머지않았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찾잔 속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계산이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내부 권력 구도를 보면 자체 혁신 동력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혁신과 변화’라는 시대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여기에 민심은 임계점을 향해 치달고 있다. “민심은 바다와 같아 배(정당·권력)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정치권의 오래된 금언이 있다. 거대 양당이 오만과 폭주를 거듭하며 내년 총선 민심의 바다에서 침몰할 것인지, 혁신의 뜻을 펴고 새로운 미래 항로를 개척할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이사

기 고



박상희
동화작가

아버지 집에 들어서자 카톡 카톡 휴대전화 소리가 울렸다. 문자 메시지가 왔는지 아버지가 몇 번이나 쳐다보며 휴대전화 글자 크기를 크게 하려고 애를 썼다. 내가 얼른 다가가 아버지 전화를 확인하니 큰 언니가 보낸 문자였다. 아버지 생신에 바쁜 일이 생겨 못 온다는 내용이였다. 아버지 얼굴에 서운함이 또렷하게 보였다. 나 아무렇지 않은 듯 언니보다 손주들이 보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나도 조카들이 보고 싶는데 유난히 정이 많은 아버지는 오죽할까.

우리가 살던 집은 길가에 있었는데, 아버지는 농사 일하러 가는 마을 사람을 보면 그냥 보내지 않았다. 잠시 쉬어가고 붙잡고는 쩌 고구마나 감자를 내놓거나 막걸리 한 잔이라도 꼭 대접하곤 했다. 바쁘다고 손사래 치면 물 한 잔이라고 따주곤 했다. 남에게도 베풀기 좋아했는데 사랑하는 손주들에게야 무엇이든지 아까워할까. 김나무에서 탄 감과 밤에서 쨌 고구마도 차곡 차곡 쌓아 놓았다가 올 때마다 꺼내 주었다.

잠시 후 여동생 가족이 우르르 들어오니 갑자기 아버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